

일본 공대생들, 조선이공대서 학술·문화 교류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가 4일 이바라키공업고등전문학교 단기연수 환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열린 환영식에는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과 노찬승 조선이공대 국제교류원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성경민 이바라키공전 국제장조공학과 전기전자코스 부교장과 이바라키공전 학생 5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0년 5월 시작된 단기 연수는 양 대학이 맺은 학술 및 문화교류 협약 프로그램의 하나로, 일본 공업전문 대학생들에게 특성학과 실습 및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2주 동안 조선이공대에 머물며 기계과, 전자과 등 전공실습교육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받고 광주그린카진흥원, 기아오트랜드광주 등 산업체를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전주한옥마을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호남대 LINC 3.0 사업단, 모빌리티 분야 협약



호남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양승학)이 최근 광주권 LINC 3.0사업단 모빌리티산업 협의회 구성 및 업무협약에 이어 광주대·전남대·조선대·조선이공대·광주그린카진흥원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호남대학교 LINC 3.0사업단 A-ICC(미래자동차) 손병래 센터장, 광주대학교 LINC 3.0사업단 그린모빌리티 ICC 최영수 센터장, 전남대학교 LINC 3.0사업단스마트모빌리티 ICC 이원오 센터장, 광주그린카진흥원 최진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5개 대학 및 광주그린카진흥원은 ▲LINC 3.0 사업에 대한 기관 상호간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모빌리티 관련 산·학·연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협업 ▲모빌리티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사업 ▲각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광주소년원서 황혜성 박사 초청 강연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서생현)는 최근 법무부 고등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교장 신원식)에서 황혜성(사진) 교육학박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바른 인성과 삶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한 황 박사는 "한때의 실수는 있었지만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으로 삼아 꿈과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며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함께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바른 삶의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전교생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간식을 후원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석산고 '위버맨슈' 책 출간



광주석산고등학교(교장 김희균) 학생독서토론 동아리 '위버맨슈' 학생 4명(사진)이 최근 학생 책쓰기 결과물로 '심장을 바쳐서라도', '추억과 기대 사이'를 출간했다.

위버맨슈는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자율·독서토론 동아리로 총 39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학년 학생 4명이 책을 출간했다.

'심장을 바쳐서라도' (저자 사안)는 의학분야 지망생인 사안군이 한 명의 의사가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추억과 기대 사이' (공동 저자 정승민·박정주·김수성)는 법조인, 교사, 건축가를 꿈꾸는 저자들이 각각의 진로와 관련된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조선대병원, 日 미야자키 간호대생 대상 팸투어



조선대병원은 지난 1일 일본 미야자키 현립 간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와키타 나오키 미야자키 간호대 교수와 재학생 등 13명이 참여, 조선대 의료시설과 시스템을 견학했다. <조선대 병원 제공>

농협광주본부, 고향사랑의날 걷기 축제서 농산물 홍보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2일 진행된 '고향사랑의 날 기념 걷기 축제'에 참여해 평화누리길 일원 약 5km를 걸으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농산물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히든 어스 한반도 30억 년(재) 50 1020세대의 눈으로 본 KBS 55 도시의 기록	00 순정복서(재)	1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30 주니토니아(재) 45 팬티히어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3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00 KBS 뉴스 10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작 해무(재)			00 뉴스브리핑
15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00 KBS 뉴스타임 10 쇠!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16	00 사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농천 예술 따라잡기(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17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10 트로트 클래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18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우아한 제국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20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21	00 KBS 뉴스 9	45 순정복서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2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5 더 라이브	00 심야교담회	20 과몰입 인생사
23	30 제64회 페루초 부스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55 아이 러브 스포츠	20 100분토론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24		20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재)	45 TV예술무대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기 구조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야(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그와 블랙캣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몸	18:40 EBS 뉴스
07:00 뽕뽕뽕 뽕뽕 뽕뽕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월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최강우주소방대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에메이징 페루 -정글과 협곡 사이 아마존과 안데스>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0 한국기행
08:35 뽕뽕뽕 뽕뽕 뽕뽕	16:40 당동명 유치원(재)	<산골의 세프들 2부 그녀의 상상 맞짱>
08:50 로보카 폴리	17:00 페파 피그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22:45 건축탐구 - 집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애코의 요수리동요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	17:25 뽕뽕뽕 뽕뽕 뽕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5일(음 7월 21일 丙寅)

<p>36년생 방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48년생 분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60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72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84년생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미리 나아가 맞이하여야. 96년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9, 87</p>	<p>42년생 준비해 두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4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66년생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78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90년생 큰일을 꿈꾸다가 눈앞의 현실을 망각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02년생 반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5, 88</p>
<p>37년생 평상시대로만 해 나간다면 결과가 무난할 것이다. 49년생 숨 고르기를 하면서 속고해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61년생 안장 국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3년생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심하자. 85년생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다. 97년생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09, 98</p>	<p>43년생 합리적인 추진이 불변을 해소해 주리라. 55년생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거나 떠나지 않게 주의하라. 67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보인다. 79년생 이치를 터득해야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91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03년생 숙명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5, 74</p>
<p>38년생 뒤집혀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다. 50년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하라. 62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74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로다. 86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98년생 정확하게 선별해 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6, 75</p>	<p>44년생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56년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68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80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로다. 92년생 숙명적일 것 같았던 일이 풀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85</p>
<p>39년생 다 끝난 일이나 속히 미련을 버려라. 51년생 서로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63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75년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87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라 한다. 99년생 파격적인 조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81</p>	<p>45년생 광범위하게 유익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57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69년생 다양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겉모양은 허술해도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93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05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라. 행운의 숫자 : 27, 69</p>
<p>40년생 귀에 거슬리더라도 따르는 것이 맞다. 52년생 근본적인 동기 부여가 절실한 때이다. 64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76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88년생 아주 기쁜 일이 생기는 구도이다. 00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89</p>	<p>46년생 중요한 일이나 확실시 해두어야 후환이 없다. 46년생 급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58년생 지난 세월 동안의 누적된 은인을 자차하고 원만한 의사소통해야겠다. 70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82년생 뜻밖의 변수가 보인다. 94년생 전례에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7, 93</p>
<p>41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입지에 놓인다. 53년생 능숙하지 못하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라. 65년생 상호 간에 연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77년생 역면 그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으리라. 01년생 우연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71</p>	<p>47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47년생 광범위하게 유익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59년생 현재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71년생 교착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 83년생 새로운 길을 접하는 기쁨은 대단할 것이다. 95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4, 82</p>